

“디지털 혁신, 지금이 골든 타임” 우리금융 바꾸는 10대과제 제시

손태승 회장 디지털 비전 선포

디지털 협업 등 외부 협력 강화 AI전문가 양성에 직원 파견 등 디지털혁신총괄 구성 리더십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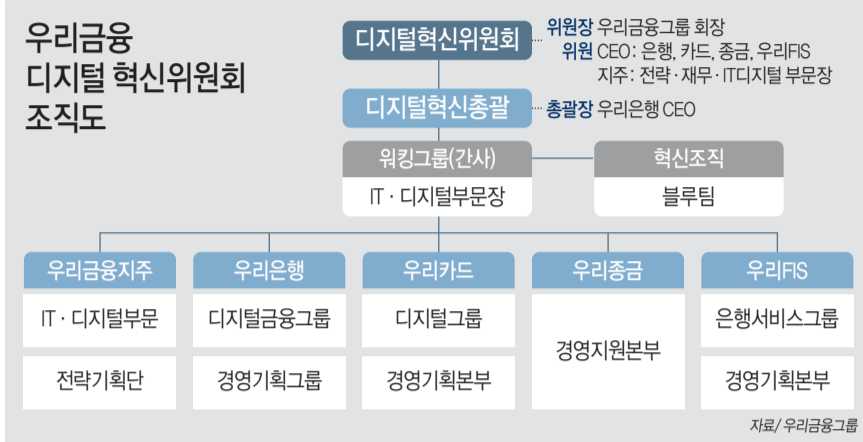
“지금이 디지털 혁신의 골든타임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디지털 혁신에 승부수를 띄웠다. 손 회장은 지난 15일 개최된 그룹디지털 비전 선포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Untact·언택트) 바람은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새로운 표준(Next Normal)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전 그룹이 디지털 전략을 최우선으로 하고 디지털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는 의미로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체인지 에브리싱(Change Everything)’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손회장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 마케팅 방안 및 그룹 모바일 플랫폼 체계 구축안 등 다양한 디지털 혁신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또 그룹의 전산 자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서 구축 중인 그룹 공동클



라우드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손회장은 과감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을

통해 핀테크 기업을 직접 인수하거나 다른 업종과 적극적인 디지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외부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AI) 전문가 양성 과정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내부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 회장은 권광석 우리은행

장과 ‘디지털혁신총괄위원회’를 구축했다. 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산하에 권 우리은행장을 총괄장으로 하는 ‘디지털혁신총괄’ 조직을 구성해 탑다운(Top-Down)식 리더십을 확보한다.

그룹사의 젊고 혁신적인 직원들로 구성된 ‘블루팀(BLUE Team)’을 참여시켜 급변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대응하는 현장주도(Bottom-up) 혁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금융그룹은 모바일 브랜드 윈(WON)을 중심으로 고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금융에 디지털 혁신을 입혀 고객의 일상에 행복을 드리는 금융그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SC제일銀 순익 938억... 전년比 23% ↑

1분기 대출자산 증가 등 영향

SC제일은행은 지난 1분기에 93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78억원(23.4%)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95억원으로 전년 동기(976억 원)보다 219억원(22.4%) 늘었다.

수익의 경우 지난 1분기 대출자산 증가, 자산관리부문 수수료 수익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04%포인트, 1.64%포인트 상승한 0.51%, 8.32%로 전년 동기보다 높았다.

고정아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은 각각 0.40%, 0.22%를 기록했다.

총자산 규모는 전년 말(67조8628억원)보다 13조2569억원(19.5%) 늘어난 81조119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 1



분기 중 대출 자산과 투자자산이 늘어나고 파생상품 자산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Tier1)비율은 각각 15.41%, 13.53%를 기록하는 등 견실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17일 “리테일 금융 부문에서 차별화한 글로벌 자산 관리전략과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로 고객과 만나고 있다”면서 “모기업인 SC그룹과 연계해 미래의 중요한 영업기반인 자산관리(WM) 비즈니스를 강화 중”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미래에셋 “안방 주장 어불성설... 승소 자신”

» 1면 ‘매도자 소유 입증서류’서 계속

여기서 두 회사의 입장이 엇갈린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계약서에 거래 선결 조건으로 완벽하게 ‘무결한’ 소유권이 이전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권원보험을 받아내는 것이 당연하단 설명이다.

반면 안방은 “권원보험을 확보할 의무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가 된 6건은 증거사기가 분명하며, 권원보험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확정판결만 받아내면 된다는 반박이다. 그러면서 “계약서상 해당 호텔의 영업과 소유권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은 “활당하다”는 입장. 미래에셋 관계자는 “권원보험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안방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온전한 안방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 소유권 확인이 불가능한 물건을 무작정 사라는 소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사 등 이전 자료조사에서 안방이 6곳의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지난 2월이 돼서야 알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확정판결만 받으면 된다는 안방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종 판결만 남았다는 것은 안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현재 소송 단계이며 권원보험사에선 그 소송에서 안방과 미래에셋의 권원보험을 보증하지 못하겠다는 배제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미래에셋이 사들이기로 한 부동산 일부를 안방과 제삼자가 소송 중인데, 이 소송 때문에 권원보험사에서 매도 대상 호텔에 대한 권원보험을 내주지 않아 계약위반이 됐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은 ‘승소 확신’...계약 조정은 아직

미래에셋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할 경우다. 7조원 규모 호텔을 그대로 안아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승소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내부 관계자는 “법정에서 결정 나겠지만 우리는 승소를 100% 자신한다”며 “계약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약 당시 자문을 맡았던 로펌 그린버그 트라우리도 무난한 승소를 예상했다고 한다.

한 국내 부동산 전문변호사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봐야겠지만 미래에셋 주장대로 권원보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안방 손을 들어주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서울·부산, 핀테크 혁신금융 중심지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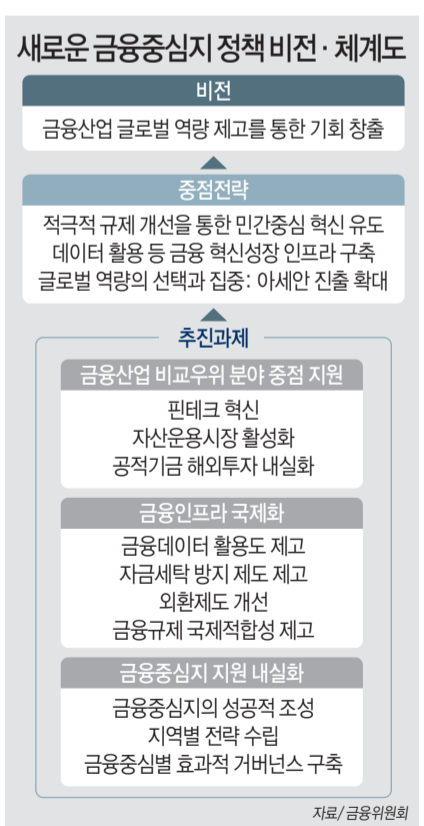
핀테크 기반 확충, 선순환 구조 마련 금융혁신 기반 인프라 국제화 추진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 지원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전략을 핀테크 등 혁신금융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또 금융중심지 내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유치를 늘리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09년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추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안’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안은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으로 구성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금융인프라 국제화 ▲금융



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 3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자산운용시장, 공적기금 해외투자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자금 예산 등 핀테크 기반을 확충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과 규제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퇴직연금 및 연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고, 펀드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자산운용분야 혁신을 유도한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

공사의 해외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혁신이 기반이 되는 금융인프라도 국제화 한다. 빅데이터 등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외환 거래의 편의성을 높여 대외거래가 원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 부산등에 위치한 금융중심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분기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총 162곳으로 지난 2015년 대비 4곳 줄었다. 본점 수익성 악화로 국내 진입이 정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와 함께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늘린다. 또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금융중심지별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기본계획안은 오는 27일 금융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서 수립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매해 작성하는 금융중심지 시책과 동향을 통해 추가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